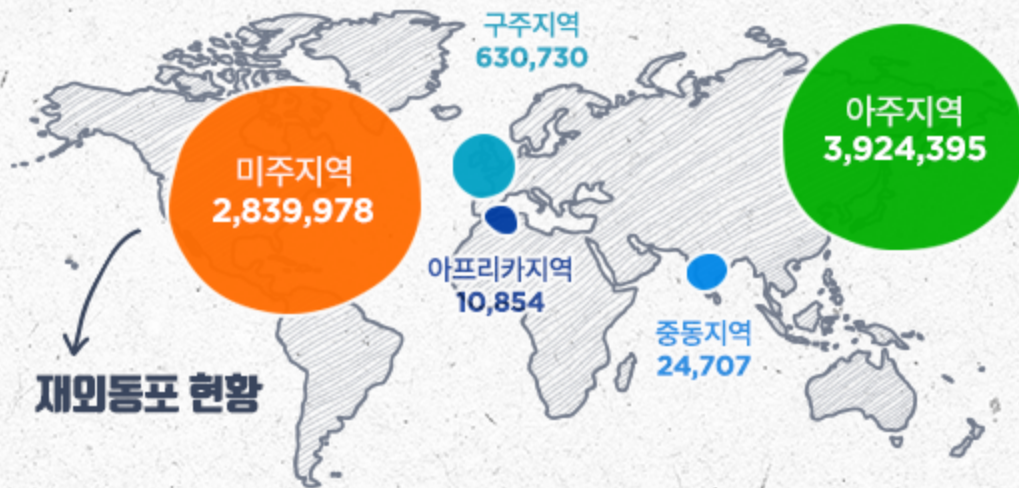


재외동포청소년들은

**자신들의 정체성을  
어떻게 인식하고  
있을까요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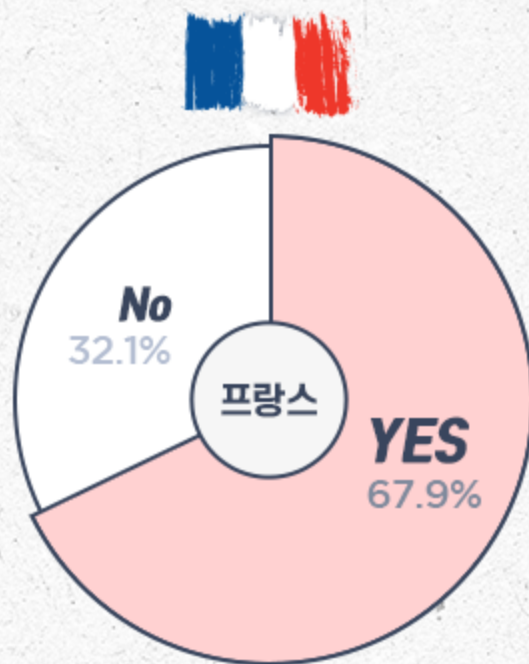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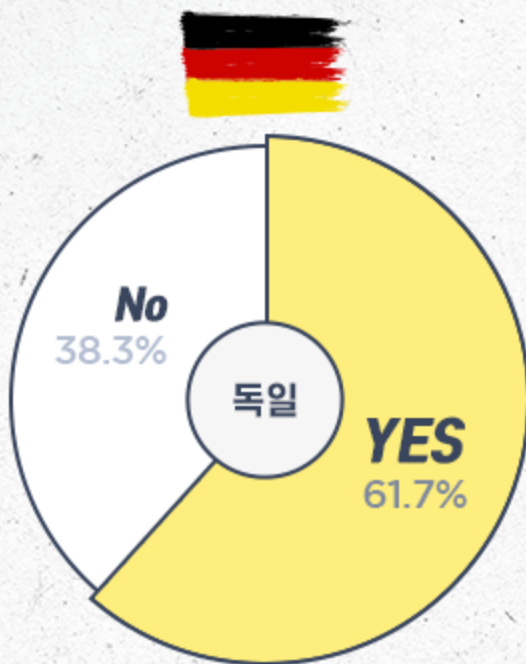
#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동포들은 약 **740만 명**에 달하는데요.

1990년대 이후 사업이나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 
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 
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\* **재외동포** :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의 동포를 포함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 
**독일 및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(만 9세~24세) 총 484명을**  
**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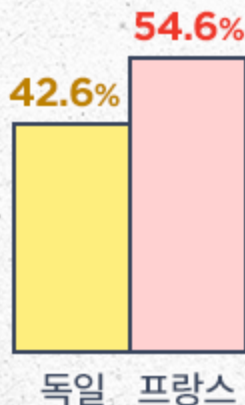


독일 61.7%, 프랑스 67.9% 응답자가  
**한글학교 혹은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** 응답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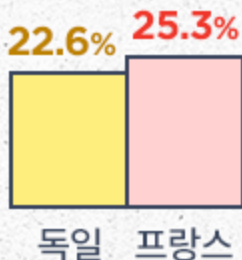
# 이들이 한글/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에 다나게 된 **이유**는 무엇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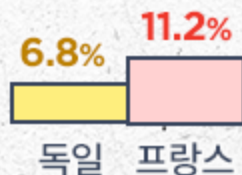
1위  
부모님의  
관심과 권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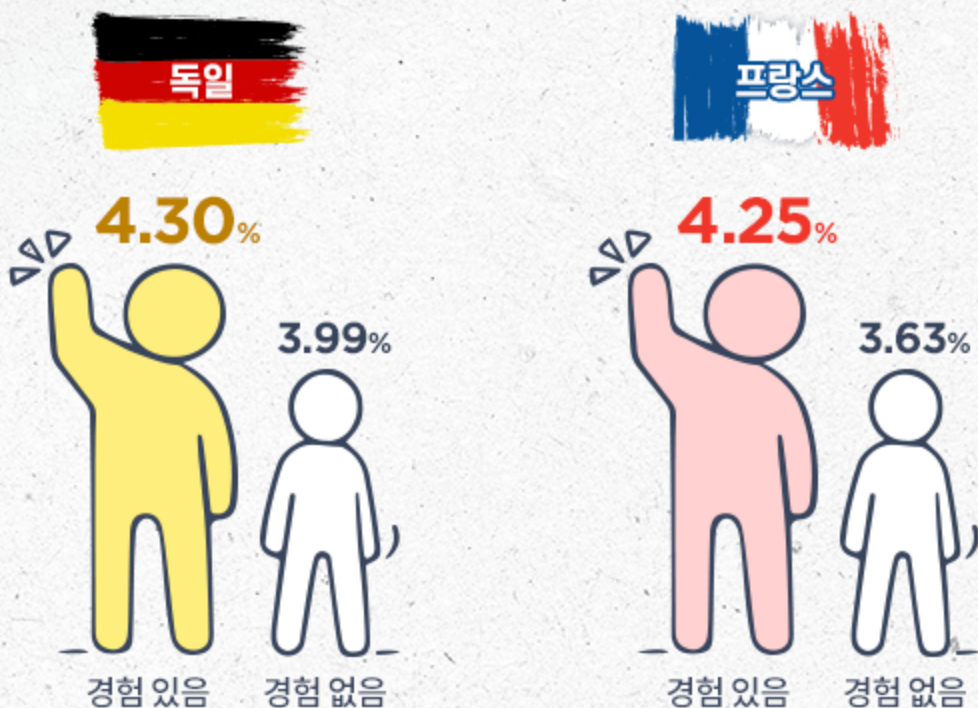
2위  
나는 한국인이라고  
생각해서



3위  
진로나 취업에  
도움을 얻기 위해



독일과 프랑스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청소년들 중  
한국어 교육경험이 있는 이들의 **한국어능력**은  
교육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더 **높은 것**으로 드러났고요.



이 결과는 한국어 교육경험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사용에  
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
# 그렇다면!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

독일과 프랑스에서 태어나  
성장한 경우



한국계 독일인/프랑스인 > 한국인

이중정체성

한국에서 태어나  
이민 온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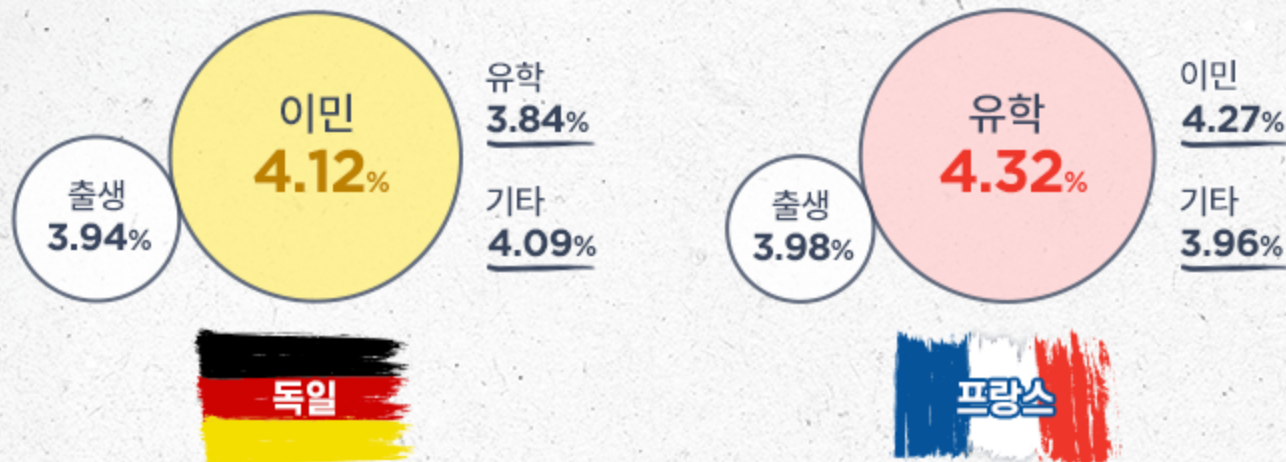


한국계 독일인/프랑스인 < 한국인

한국인

독일과 프랑스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 
한민족 정체성도 한국에서 이민이나 유학 온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죠.

## 거주 유형별 한민족 정체성 \*



\* **한민족 정체성** : '나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'  
 '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'  
 '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한다'  
 '나는 독일/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'  
 (4문항의 평균)



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국 관련 교류 욕구에 대해  
장기간 체류보다 여행과 같은 **일시적 체류**를  
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

한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나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 
**한국 조직 및 기업 문화에 대한 두려움,**  
**한국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** 등을 손꼽았습니다.





# 이들이 **한국 교류 등과 관련하여** 희망하는 지원은 무엇일까요?



한국 방문  
기회



한국 관련  
교육 지원



한국 청소년과의  
교류



취업/진로  
정보 제공

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국 방문 기회를 가장 희망했으며,  
한국 관련 교육 지원,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, 취업 및 진로 정보 제공 등을  
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
**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얻고자 하는  
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해  
향후 모국 초청 연수를 확대하고,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 
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.**

재외동포청소년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 
거주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
「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」